

金現感虎에 對하여

金 光 淳

I. 序 論	3.2 虎 語
II. 異本間の 先後關係	3.3 虎 願
III. 各 異本間の 構造的 特徵	IV. 文學的 意義
3.1 金現感虎	V. 結 論

I. 序 論

「金現感虎」¹⁾의 異本으로는 「虎願」²⁾과 「虎語」³⁾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研究는 「金現感虎」에 치중되어 왔고, 「虎願」은 그것의 축약된 異本으로 간단히 처리되었으며,⁴⁾ 「虎語」는 몇몇 論者에 의해 그 줄거리만 소개되었을 뿐,⁵⁾ 이를 「金現感虎」의 異本으로 보아 상호간의 구조적 대비를 통해 총체적으로 다룬 論究⁶⁾는 거의 없다.

그리고, 종래 대부분의 論者들은 「金現感虎」를 說話로 인식⁷⁾해 왔으나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金現感虎」를 개인의 장의성이 부각된 허구적인 이야기로 보아 조심스럽게 小説로 수용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⁸⁾ 그러나 선뜻 小説이란 갈래를 붙이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다만 池浚模가 일찌기 傳奇小説의 효시를 신라에 두는 說을 제시했으며,⁹⁾ 그 뒤 林煥澤이 傳奇의 특징과 羅末麗初에 小説이 성립될 수 있는 역량을 열거하면서 「金

- 1) 三國遺事(서문문화사, 1983).
- 2) 大東韻府群玉(亞細亞文化社, 1976).
- 3) 補閑集(대양서적, 1972).
- 4) 金榮晚, 金現感虎說話에 나타난 佛敎思想考(국어국문학,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2).
林煥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韓國漢文學 第5輯, 韓國漢文學會, 1981)
車洛柱, 金現感虎說話研究(淸州師大 論文集 第7輯, 1978).
池浚模, 新羅殊異傳研究(語文學 35輯, 한국어문학회, 1976).
- 5) 許永美, 補閑集의 文學的 性格(慶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pp. 48~49.
李家源, 韓國漢文學史(보성문화사, 1979).
- 6) 車洛柱, 前掲書.
- 7) 趙偶濟, 國文學史概說(乙酉文化社, 1982), p. 39.
張德順,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77), p. 442
金東旭, 國文學史(日新社, 1983), p. 79
白 鐵, 李秉岐, 國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75), p. 76.
黃汎江, 한국민족설화와 호랑이(국어국문학 제 55~57집, 국어국문학회, 1979).
- 8) 金光淳, 韓國古小説史序說(어문논총 19호, 경북대 인문대국문학과, 1985), p. 62.
李家源, 前掲書
李丙疇, 古典의 散策(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p. 235
池浚模, 新羅漢文學史(신라가야문화연구원 4집, 영남대 신라가야문화연구원, 1972).
林煥澤, 前掲書.
- 9) 池浚模, 傳奇小説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어문학 32집, 한국어문학회, 1975).
池浚模, 新羅漢文學史(신라가야 문화연구 4집, 영남대 신라가야 문화연구원, 1972), p. 127.

現感虎」를 小說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¹⁰⁾

따라서 本稿에서는 原典批評¹¹⁾과 書誌學의 方法¹²⁾을 적용하여 「金現感虎」의 異本이라 생각되는 「虎願」, 「虎語」 등의 關係를 밝혀 原本에 가까운 最古本을 알아낸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구조주의적 입장¹³⁾에서 각 異本에 나타난 人物, 思想, 社會의 背景, 主題의 變容 등을 유기적 관련 아래서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唐 傳奇小說과의 비교¹⁴⁾를 통해 「金現感虎」의 genre적인 성격을 밝히므로써 그것의 문학적 의의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로는 「三國遺事」¹⁵⁾에 수록되어 있는 「金現感虎」와 「補閑集」¹⁶⁾의 「虎語」 「大東韻府群玉」¹⁷⁾의 「虎願」을 대본으로 한다.

II. 異本間の 先後關係

한 작품에 여러 종의 異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독자와 청자에¹⁸⁾ 의해 향유되었음을 방증하는 단적인 예가 된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문으로 정착된 作品은 記錄文學의 성격보다 口碑文學의 성격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講談師가 한문을 해독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에게 口誦하는 과정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다. 즉 傳奇叟와 講談師의 출현은 문학의 積層性을 자극하여 작품에 개인작의 요소보다는 공동작의 요소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수종의 異本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Novel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小說이 정립되기 이전의 古小説은 ‘입혀졌다’기 보다는 ‘듣고 말하여 졌다’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 본다.

口碑傳承되는 과정에서 문가로 정착된 한 작품에서 파생된 異本の 개념 규정은 개별 작품과 異本간의 차이를 究明하는 작업과 상통한다. 異本の 사전적 의미는 진기한 책(珍本) 내용이나 글자가 다소 다른 것¹⁹⁾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異本은 우리 문학에 있어 인쇄술과 지목의 회귀성 때문에 문학 작품이 口碑傳承되어 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金現感虎」와 「虎願」에는 몇몇 字句의 교체나 단어의 加減²⁰⁾이 있을 뿐——물론 「虎願」에는 老嫗가 호랑이 형제에게 害를 당하지 않도록 金現을 숨겨주는 부분과 호랑이들

10) 林煥澤, 前掲書.

11) 金男範, 原典批評의 韓國의 適用(韓國文學研究方法論, 民族文化社, 1983).

12) 金東旭, 韓國文學과 書誌(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13) 김치수, 문학에 있어서의 구조주의(현대 문학비평의 방법론, 서울대 출판부, 1983).

14) 李慧淳, 比較文學(문학과 지성사, 1985).

15) 三國遺事(崔南善撰, 서문문화사, 1983).

16) 補閑集(대양서적, 1972).

17) 大東韻府群玉(亞細亞文化社, 1976).

18) 한문작품일 경우, 일반 대중은 거의 독자가 될 수 없었고,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전거수나 강달사를 통해 이야기의 청자만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계층으로서의 한문식자들은 괴이한 이야기를 사갈시하면서도 은밀하게 읽었다는 사실에서, 많은 독자'라는 말을 썼다.

19) 李熙昇, 國語大辭典(민중서관, 1982).

20) 車裕柱, 前掲書.

의 대화 장면, 하늘의 징계에 대한 처녀의 속죄 결심, 異物과의 文構에 대한 金現 자신의 견해, 처녀가 말한 五利와 兩부의 말, 虎患의 치료 방법 등이 생략되어 있지만——「金現感虎」에 있는 얘기가 「虎願」에 삽입되어 있다든가 주제가 變容되어 있다든가 하는 차이는 없다. 「虎願」이 「金現感虎」의 축약이라는 점에서 형식론자들이 문개삼는 조개의 상이는 논쟁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 字句의 교체나 단어의 가감을 보이기 위해 「金現感虎」의 첫부분과 끝부분을 「虎願」과 대비해 보기로 하자.

〈金現感虎〉

新羅俗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競遊興輪寺之殿塔爲福會元聖王代有郎君金現者夜深獨處不息有一處女念佛隨繞……(中略)……熙怡而笑曰昨夜共君纏綿之事惟君無忽……乃取現所佩刀自頸而仆乃虎也……現既登庸創寺於西川邊號虎願寺……

〈虎 願〉

新羅俗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競遊興輪寺塔爲福會元聖王時有郎君金現者夜深獨處不息有一女隨繞……(中略)……笑曰昨日纏綿之事惟君無忽乃取現所佩刀自頸而仆乃虎也現既登庸創寺於西川邊號曰虎願(表示는 字의 加 또는 교체를 뜻함)

「虎願」은 「金現感虎」의 것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비해, 「金現感虎」에 있는 것이 「虎願」에는 빠져 있는 점을 볼 때 「虎願」은 「金現感虎」를 축약한 異本임이 확실하다. 여기에 비해 「金現感虎」와 「虎語」는 주인공의 차이는 물론 主題의 변용까지 나타나 는 작품으로 개별적인 성격이 강해 異本으로 보기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들이다. 그러나, 「金現感虎」²¹⁾의 구성원리를 답습하여 작가가 시대적 배경에 의해 의식적으로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 그 주제를 변용시켰다는 관점에서 「虎語」를 개별 작품이 아닌 「金現感虎」의 異本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 말하는 異本은 같은 표제를 가진, 내용이나 글자에 다소 차이가 나는 작품(협의적 정의)은 물론, 원본에 가까운 작품을 보고 의식적으로 주제를 변동시킨 작품(광의적 정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위에서도 작품 내용에 따른 異本の 선후관계가 조금 언급이 되었지만 창작 연대가 정해지지 않아 있지 않은 각 異本の 선후를 밝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끝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 異本이 실려 있는 문헌의 저작 연대가 해결의 실선적으로 보이기만 실상은 이들 異本이 口碑傳承되는 과정에서 문자로 정착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문헌의 저작 연대는 각 異本の 최후선을 한계지를 수는 있어도 그것의 출발점을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품의 구성

21) 金現感虎에 對한 표제는 虎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權文海가 金現感虎에 對한 成語로 이는 하지 않고, 虎願에 對해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一然이 新羅殊異傳에 虎願으로 되어 있는 표제를 三國遺事의 체제, 즉 感通條에 맞게 金現感虎로 改稱했을 것이라는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편의상 金現感虎로 쓰기로 한다.

원리를 통해 그것의 선후관계를 해명하려는 논자²²⁾도 있다. 브루느피에르의 장르 진화론을 전제로 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문헌학적 방법을 보충할 수 있는 한 논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의 진행과 장르의 진화가 상호 비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냐는 문제와 구성원리의 설정 기준의 모호함의 의문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장르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시간과의 문제는 보류해 두고 문헌의 저작 연대——그것도 未詳이면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간행연대까지 동원할 것이다. ——를 통해 각 異本의 선후관계를 추정한 후 시대적 배경과 작품 내용을 연관시켜 선후를 판별하는 보충적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崔滋(1188~1260)의 「補閑集」은 李仁老의 「破閑集」을 增補하였지만, 그것(1260년刊)보다는 일찍 간행(1256년)되었고 一然(1206~1289)이 撰한 「三國遺事」는 「補閑集」보다는 조금 뒤인 1281~1287년 사이에 저작되었다. 그리고 權文海(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은 이들보다 훨씬 뒤인 조선 선조 때에 저작되었다. 이러한 문헌의 저작 연대 내지 간행 연대를 통해 피상적으로 보면 일본의 선후관계가 「虎語」→「金現感虎」→「虎願」順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이는 문헌의 저작 연대와 거기에 전제된 작품의 창작 연대가 거의 동일하리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오는 오류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金現感虎」와 「虎願」이 「新羅殊異傳」에서 引出되었다²³⁾는 것이다. 「新羅殊異傳」²⁴⁾은 「海東高僧傳」, 「三國遺事」, 「太平通載」, 「筆苑雜記」, 「三國史節要」, 「大東韻府群玉」에 그 逸文이 전하는데, 그 표제도 문헌에 따라 「海東高僧傳」, 「三國史節要」에서는 「殊異傳」으로, 「太平通載」, 「筆苑雜記」 「大東韻府群玉」에서는 「新羅殊異傳」으로, 「三國遺事」에서는 「古本殊異傳」과 「新羅異傳」으로 달리 불리어졌다. 그리고, 「新羅殊異傳」의 편저자에 대해서도 覺訓은 朴仁亮(~1096)으로, 權文海는 崔致遠(857~?)으로 달리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朴仁亮이 편저자로 되어 있는 「新羅殊異傳」은 「殊異傳」으로, 崔致遠이 편저자로 되어 있는 「新羅殊異傳」은 그대 「新羅殊異傳」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徐居正은 「筆苑雜記」에선 「新羅殊異傳」으로, 「三國史節要」에선 「殊異傳」으로 달리 명기해 놓고 있다. 문헌에 따라 표제와 편저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물론 「新羅異傳」은 「新羅殊異傳」의 약칭이고 「古本殊異傳」은 「新羅殊異傳」의 별칭으로 볼 수 있지만²⁵⁾—— 「殊異傳」은 「新羅殊異傳」의 약칭이 아니라 朴仁亮이 崔致遠의 「新羅殊異傳」을 참고로 하여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첨가한, 「新羅殊異傳」과는 그 체재나 내용에 있어 다소의 이동이 있는 별개의

22)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간연사, 1977).

23) 權文海는 大東韻府群玉에서 虎願의 出典을 新羅殊異傳이라고 밝혔으나 一然은 金現感虎의 出典을 명시하지 않았다. 金現感虎가 新羅殊異傳(古本殊異傳)의 逸文임은 뒤에서 밝혀질 것이다.

24) 崔致遠의 新羅殊異傳을 殊異傳, 新羅異傳의 原本으로 보고, 이들 여러 종의 통칭으로 쓰기도 한다.

25) 一然은 海東高僧傳을 海東僧傳이라 했다(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寶壤梨木條)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三國遺事」에서 一然이 언급한 「古本殊異傳」²⁶⁾은 崔致遠의 「新羅殊異傳」이고 후인이 개작했다고 하는 「新羅殊異傳」은 朴仁亮의 「殊異傳」일 것이다.

「三國遺事」에 전하는 「金現感虎」는 비록 그 출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虎願」과의 대비를 통해 보면 그 구성이나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新羅殊異傳」에서引出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虎願」은 임진왜란 전까지 전해오던²⁷⁾ 「新羅殊異傳」을 보고 權文海가 「大東韻府群玉」의 사전적 성격에 맞도록 축약했음이 확실하다. 「虎願」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金現感虎」의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중반부는 생략되어 처녀가 호랑이의 변신임이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乃取現所佩刀自頸而仆乃虎出’라 하여 비로소 그 처녀가 호랑이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金現感虎」의 내용을 알고서 그 중반부를 의식적으로 삭제해 버리고 다만 「虎願」의 어원을 밝혀려는 편저자의 의도가 절제 짚힌 것이다.

그런데, 「金現感虎」는 「新羅殊異傳」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金現感虎」異本들의 원문일까?

「太平通載」에 실려있는 「崔致遠傳」은 「新羅殊異傳」의 유일한 完文으로 「三國遺事」의 「金現感虎」에 비해선 훨씬 長文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新羅殊異傳」에 실려 있을 「金現感虎」와 유사한 이야기, 곧 편 의상 「虎願(?)」이라 명명하고자하는 이 이야기는 「三國遺事」의 그것보다는 내용이 풍부한 장문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三國遺事」의 「金現感虎」는 출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新羅殊異傳」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一然 자신의 作意를 가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⁸⁾ 여기에 비해 「虎願」은 축약시켜 놓은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金現感虎」보다는 편저자의 作意가 약화되어 있다. 「虎語」가 「新羅殊異傳」의 「虎願(?)」을 참고하여 의식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삭제하고 처녀를 소년으로, 金現을 法師로 바꾸어 불교의 윤회사상——죽음과 재생의 motif——과 인과응보를 강조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수차에 걸친 몽고의 침입에 대한 민중의 항쟁의식에서 싹튼 호국불교적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金現感虎」, 「虎願」, 「虎語」의 선후 관계의 圖式化를 위해 「新羅殊異傳」에 수록되어 있었던 이야기의 제목을 알 수 없어서 여기서는 우선 「虎願(?)」이라 命名하고 「三國遺事」의 「金現感虎」와, 「大東韻府群玉」에 수록되어 있는 「虎願」과, 「補閑集」에 수록되어 있는 「虎語」와의 상호 관계를 圖式化해 보면 다음 面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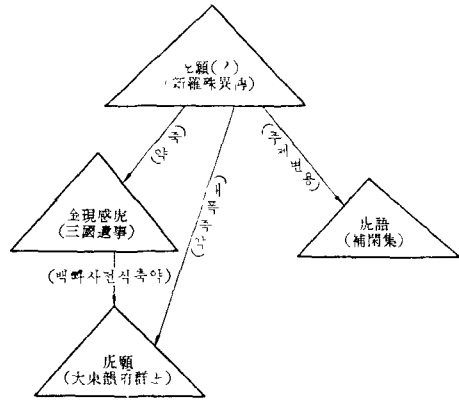
다음 圖表에서 보인 바와 같이 「大東韻府群玉」의 「虎願」은 百科事典式的 語源說明을 위해 「新羅殊異傳」의 「虎願(?)」에서 대독 축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三國遺事」의 「金

26) 三國遺事 卷四, 義解 第五 圓光西學條

27) 池浚模, 新羅殊異傳研究(語文學35輯, 한국어문학회, 1976), p. 209

28) 三國遺事 所載 신도정 이야기도 太平廣記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現感虎」도 「新羅殊異傳」의 것에서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現存하는 「大東韻府群玉」의 「虎願」은 「三國遺事」의 「金現感虎」보다 더욱 축약된 형태로 남아 전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補閑集」에 전하는 「虎語」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에 따라 「新羅殊異傳」의 「虎願(?)」에서 주제 변용이라는 과정을 거쳐 작자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 형태로 변모된 채 남아 전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본에 가장 가까운 現存 最古本은 「三國遺事」所載 「金現感虎」로 추정된다.

Ⅲ. 各 異本間의 構造的 特徵

1. 金現感虎

사건 전개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金現感虎」를 몇 개의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金現이 보름날 탐돌이를 하다가 한 처녀를 만나 情을 나눈.
- ② 金現은 처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따라 오두막집으로 감.
- ③ 老嫗가 호랑이들의 행패를 염려하여 金現을 숨어 있게 함.
- ④ 잠기 후 세 마리 호랑이가 들어와 사람 냄새를 맡고 요기하려 하자, 老嫗와 처녀가 꾸짖음.
- ⑤ 이때 하늘에서 세 호랑이의 작폐를 징계하리라는 호령 소리가 들림.
- ⑥ 처녀가 오빠 호랑이를 대신해 속죄할 것을 다짐함.
- ⑦ 처녀가 金現에게 자신이 죽는 이유를 설명한 뒤 그의 손에 죽고 싶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줌.
- ⑧ 金現은 배필의 죽음을 팔아 자신의 영화를 구할 수는 없다고 거절함.
- ⑨ 처녀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섯 가지 이득이 있다고 설득하면서 자신이 죽은 뒤에 절을 세워 명복을 빌어주기를 부탁하고 울며 헤어짐.
- ⑩ 다음날 성안에 猛虎가 나타나자 金現이 捕虎者로 나섬.
- ⑪ 처녀는 숲속에서 金現에게 虎爪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유방법을 알려주고는 金現의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자 다시 호랑이로 變形됨.
- ⑫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등용된 金現은 그 후 西川가에 절을 세워 그녀의 명복을 빕.

이상에서 작품내용을 그 의미단락에 따라 나누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투영된 사회적 배경, 사상, 주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金現과 처녀가 嘯會라는 탑돌이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古小說이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奇遇, 奇逢의 흥미로운 발단의 하나이다. 그리고, 奇逢의 시간적 배경을 생명의 원초적 계절인 봄으로 설정함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한 원형적 상징이다. 金現[人]과 처녀[虎], 즉 異物間의 결합은 人과 人의 交媾보다 더 흥미롭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단순한 감정상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위 쟁탈전에 혈안이 된 신라 下代의 골품제급에 대한 풍자를 함의하고 있다. 즉, 異物인 호랑이의 숭고한 회생 정신과 거기에 보답하는 한 평민의 恩愛를 통해, 집승보다 못한 당시 왕족의 비인간적 골육상잔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애정갈등은 인간생활의 현실적 모순을 반영한 것이다.²⁹⁾

이제 각도를 달리하여 호랑이를 당시 귀족으로 보아 이 작품을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자.

신라 下代에는 골품제가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下代 초기인 元聖王代에만 하더라도 신라인의 의식 속엔 아직도 계급적 관념이 잔존해 있었다. 처녀의 죽음은 표면 상으로는 세 오빠의 작폐——백성들을 수탈한 죄——에 대한 대속의 명분이지만 실상은 신분적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百獸의 왕이라는 통상적 관념과 그 성격이 포악·맹렬하다는 상식에서 작가가 苛斂誅求를 일삼던 귀족을 비유하기 위해 설정한 동물이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虎女는 어느 귀족 가문의 고귀한 처녀임이 분명하고 郎君³⁰⁾이라는 金現은 귀족계급은 아니고 寒微한 평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분적 차이로 인해 비록 ‘相感而目送之悲畢引入屏處通焉’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다행하게 용인될 수 없었다. 老嫗은 이미 었질러진 처녀의 행동을 위로해 주지만 처녀의 오빠들이 알까봐 金現을 숨도록 한다든가, 金現 자신도 같은 계층끼리의 결합이 온당한 것인지 다른 계층끼리의 결합은 떳떳한 행위가 아님을 기인하는 것³¹⁾ 등에서 뿌리 깊이 박힌 신라 골품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처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金現을 자기와 비슷한 계층으로 상승시키는 길밖에 없었다. 폐쇄된 사회일수록 신분 상승은 어렵게 마련이다. 金現으로 하여금 국가에 大功을 세우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맹호로 변한다. 아무리 썩어빠진 왕실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원성이 더디한 탐관오리, 더구나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무리들을 그냥 둘

29) 林榮澤, 前揭書 p. 92

30) 郎君은 처녀가 金現을 높이 부른 말이지 그가 귀족이라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니다.

31) 人交人彝倫之道 異類而交 蓋非常也(三國遺事 卷第五 感通七 金現感虎條)

수는 없어 2급의 판작을 내려 잡아오게 한다. 처녀는 이런 결과를 미리 짐작하고서는 자신의 죽음에 五利——天命・吾願・郎君之慶・予族之福・國人之喜——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金現의 손에 죽기를 원한다. 즉, 처녀는 사랑하는 이의 계급을 상승시켜 金現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존 사회의 관념에 대한 항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죽음이라는 최후 수단을 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金現이 西川[西方淨土]가에 虎願寺를 짓고 法網經을 講하며 그녀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것은 자기를 위해 희생된 그 여인에 대한 지극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죽음에 따른 재생의 motif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은 그리 이상한 구성이 아니다. 죽음과 재생의 motif가 나타나게 되면 처녀의 죽음은 처음부터 계산된 행동임이 노출되어 작품은 그만큼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버리고 독자는 이때까지 지녀오던 극적 긴박감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金現感虎」가 뚜렷한 창작의 식과 문학적 소양을 갖춘 어느 개인에 의해 지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종래 論者들은 「金現感虎」를 불교사상으로 일관된 작품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불교 경전에 나타난 知恩報恩思想・靈驗思想・輪廻思想에 따라 「金現感虎」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³²⁾ 물론 興輪寺와는 공간적 배경, 福會의 성격, 虎願寺의 緣起, 그리고 작품 자체의 성격 등으로 미루어 보아 「金現感虎」가 불교를 떠나서는 온당하게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글이라면 무조건 불교와 연관 지우려는 선입견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三國遺事」가 僧 一然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피상적인 사실만으로 거기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一然이 「金現感虎」를 「三國遺事」에 전제한 의도는 虎願寺의 緣起를 밝히려는 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新羅殊異傳」의 원문에서 불교와 무관한 것은 되도록이면 삭제하고 虎願寺의 緣起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남녀의 애정 이야기도 원래는 불교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민간 신앙적 내지는 무속적, 도교적 성격이 짙었는데, 一然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作意를 가미하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一然은 이 작품을 전제하면서 완벽한 불교적 입장에 서지는 못했다. 즉, 虎語의 경우처럼 인물변전에 따른 주제의 변동도 나타나지 않았고 궁극적 목표인 空思想도 투영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아서도 「金現感虎」는 단지 작품 전제의 동기나 형식만을 갖추어 억지로 「三國遺事」의 틀에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작품의 핵심인 애정 갈등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一然이 의도적으로 가미한 불교적 성격을 배제시킨 뒤 거기에 나타난 巫俗思想, 道家思想³³⁾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2) 金榮晚, 前揭書.

33) 邊太燮, 韓國史通論(삼영사, 1986).

2. 虎 語

사건 전개양상에 따라 虎語³⁴⁾를 몇 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누어 보자.

- ① 老宿(法師)이 연등회에서 소년을 봄.
- ② 老宿이 소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虎窟로 감.
- ③ 호랑이들의 행패가 두려워 老嫗가 老宿을 숨겨 줌.
- ④ 호랑이 두 마리가 토끼³⁵⁾를 잡아 오자 老嫗가 다시 먹을 것을 구해 오도록 시킴.
- ⑤ 山主(主持)가 빌었던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해 옴.
- ⑥ 호랑이의 작폐를 응징하리라는 山主의 호령소리가 들려 옴.
- ⑦ 소년이 대속하기로 결심한 뒤 내일 아침 法師가 단창을 가져와 주기를 간청함.
- ⑧ 다시 남자로 태어나 중이 되기 위해 法師를 찾아가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自頸함.
- ⑨ 15년 후 그 소년을 만난 法師는 약속대로 사발하여 줌.
- ⑩ 소년은 日嚴寺의 法師가 되어 法力으로 중생을 감복시킴.

이상의 사건 전개양상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이 「金現感虎」와 비슷함³⁶⁾을 알 수 있다. 불교 행사인 연등회[북회]에서 사건이 시작되어 소년[처녀]의 거절에도 法師[金現]가 따라가는 것과 老嫗가 호랑이들의 행패를 염려하여 法師[金現]를 숨겨주는 장면, 그리고 주지[하늘]의 징계로 소년[처녀]이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끊는 점 등이 일치하고 있다. ([]표시는 「金現感虎」의 경우를 보이기 위한 부호)

「虎語」에서 주의깊게 포착해야 할 문제는 인물의 교체양상과 그것이 주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러한 결말을 유도한 작자의 의식 등을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고찰하는 것이다.

崔致遠이 살았던 新羅 下代는 정치·사회·문화·사상의 혼란이 극심한 때였으나 그 전 어디까지나 自國民들 사이의 내적 갈등이었다. 신라 下代는 異民族의 침입에 따른 민족의 흥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도 자연히 개인의 안녕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祈福的 성격이 강하였다. 「三國遺事」所載 「金現感虎」에 남녀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틀에 박히고 형식에 얽매인 생활과 인간성이 타락된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살아보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혼란스러운 현실세계를 떠나 낭만적 사랑을 구가해 보려는 신라인의 도피적, 관상적 사고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34) 補閑集에는 여기에 대한 제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虎語라는 제명은 李家源 교수가 그의 韓國漢文學史에서 명명한 것으로 虎僧還生이라고 하는 論者(許永美, 前揭書)도 있다. 그러나, 작품 末尾의 「……此說甚怪誕 世謂識有虎僧之說 惟日嚴師當之 此亦癡語」으로 미루어 보면 虎僧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편 있었던 듯하나, 虎僧還生의 제명보다는 虎의 능동적 행위를 강조하고 다른 虎僧이야기와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虎作人語」를 취하여 虎語라 부르는 것이 더 다당하리라 본다.

35) 우리 민족을 지칭.

36) 卓溶柱, 前揭書 p. 79.

「虎語」가 崔滋에 의해 채록——물론 그의 作意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을 것이다——된 당시 고려의 상황은 신라 下代의 그것과는 엄연히 달랐다. 鄭仲夫 등에 의해 일어난 무신의 난(1170)은 국내적으로는 커다란 사건이었기만, 민족의 정통성과는 무관한 단기 정권쟁탈전의 일종이었다. 물론 내부적 분열이 국권의 상실을 가져온 경우도 허다하다. 이때의 위기는 내부적 정권쟁탈전보다는 고종 18년(1231)부터 시작되어 수 차례 계속된 몽고의 침입에 의한 국토유린에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삼별초마저 평정된 원종 14년(1273)에 우리 민족이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수난을 초래하게 된다.³⁷⁾ 따라서 「虎語」는 농민을 주체로 한 반몽항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新羅殊異傳」의 「金現感虎」 이야기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에 의해 호국불교적 입장에서 윤색된 것을 崔滋가 자신의 작의를 어느 정도 가미시켜, 최종적으로 문자로 정착시킨 작품이다. 「虎語」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작게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된 것이다. 즉, 풍전등화같은 민족의 운명 앞에서 이성간의 사랑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소년의 죽음은 「金現感虎」의 처녀처럼 댓가를 바라기 않는 무조건적 희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몽고족)³⁸⁾의 죄를 갚고 재생하여 중이 되겠다는 계산된 목적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물의 교체, 즉 처녀가 소년으로, 金現이 法師로 된 것도 시대 상황에 따른 호국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쉽게 해결이 된다. 사랑을 위해선 異性의 존재가 필수적 전제조건이지만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인간에게 이성이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虎語」에서는 처녀가 소년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單性化되고 불교신자였던 金現이 그들을 주도하는 法師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老嫗은 「虎語」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는 부수적 인물에 불과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이는 인물 교체에서 불변적 요소가 되므로 異本의 한 논거가 될 수는 있다. 인물의 교체는 주제의 변용을 수반하게 된다. 교체된 인물인 소년의 죽음은 중으로의 재생을 가져오는데, 이는 善因에는 善果가 따르고 惡因에는 惡果가 따른다는 불교의 因果應報, 輪廻思想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살상 유린한 몽고족의 죄악을 씻기 위한 贖罪虎로 소년을 등장시킨 것은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울분을 筆舌로나마 달래기 위한 사고의 일단이다. 대중에 쌓인 울분은 작품의 문학적 기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폭한 몽고족을 기어이 중으로 재생시키는 데가이 이르게 된다.

그런데, 「虎語」에는 소년의 性이 여자로 언급되어지기도 하여 문맥 파악에 혼선을 일으키게 한다. 즉, 老嫗은 소년을 兒子, 汝兩兒으로 부르고 있기만 兄이라고 하는 호랑

37) 邊太覺, 前掲書

38) 소년이 몽고족이라는 근거는 사회적 배경에서 유추된 것이지만 虎語에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少年異於尋常者」는 몽고족의 용모나 체격, 말씨가 우리민족과 상이함을 노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들은 소년을 小妹라고 부른다. 당시 호칭 사용이 혼란스러웠는지, 아니면 남동생에게 妹라는 호칭을 썼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弟의 誤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受生爲男子’에서는 불교의 十九說法 중 四婦女應身³⁹⁾을 연상케 하므로 혹자는 소년을 「金現感虎」의 처녀와 같은 인물로 보기도 한다.⁴⁰⁾ 이러한 부분적인 不統一性은 작품이 윤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여러 사람에 의해 달리 윤색될 만큼 人口에 膾炙되었다는 한 논거로 삼을 수 있다. 아 물론 「虎語」는 몽고 침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주제를 변용시킨 因果應報, 輪廻思想으로 점철된 불교적 작품이다.

3. 虎 願

「金現感虎」의 축약으로서의 「虎願」은 앞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축약의 이유와 그로 인한 작품의 성격 변모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원래 「大東嶺府群玉」의 성격이 故事成語의 典據를 풀이한 사전의 일종이므로 해당 사항을 요약·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權文海는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虎願이라는 成語를 崔致遠의 「新羅殊異傳」을 보고 老嫗가 金現을 숨겨 주는 장면, 호랑이들의 대화, 처녀가 속죄하게 된 동기와 金現과의 문답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다만 첫 부분과 끝부분만 옮겨 놓았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虎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虎願」에는 처녀의 죽음에 대한 명분적 동기——오빠 호랑이들의 죄를 갚기 위해 죽음——가 삭제되어 작품엔 오직 金現의 출세를 위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조선조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 의해 억압당하고 회생을 강요당했던 한 여인의 운명이 사랑이라는 美名 아래 착취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무리 「虎願」이 「金現感虎」를 축약시킨 작품이라 하더라도 편자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지므로 作意의 게재를 전연 배제할 수는 없다는 데서 추측해 본 결론이다. 더구나 조선 선조 때는 理氣論에 바탕을 둔 性理學이 절정에 달했을 때⁴¹⁾이므로 축약시키는 과정에서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교사상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虎願」은 지나친 축약으로 인해 구성의 긴박감 상실과 문맥의 단절 등을 초래하여 문학작품과는 거리가 먼 백과사전의 한 문장에 불과하다. 인물 교체나 주제 변용 등 원본과의 가변적 요소도 전혀 없기 때문에 異本으로서의 존재가치도 별로 없다. 단지 「新羅殊異傳」의 「虎願」이 조선 선조 때까지 구비전승되며 인기를 누렸다는 방증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虎願」에는 두 가지 측면의 호랑이像 곧, 회생과 恩愛를 아는 호랑이와 광목한 호랑이의 이 두 가지 도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殺身成仁하는 긍정적 측면의 호

39) 金俊榮, 鄉歌文學(螢雪出版社, 1983), p. 138

40) 許永美, 前揭書.

41) 邊太燮, 前揭書.

량이⁴²⁾만 등장한다. 이는 壬亂 이전까지의 조선 사회가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으며 반몽 의식의 약화로 나타난 것이다.

Ⅶ. 文學의 意義

唐代 裴鉶의 단편소설에서 비롯된 傳奇는 비현실적, 비인간적, 비과학적인 황당무계한 세계와 남녀간의 애정문제를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비교적 사건의 나열보다 인물의 심리적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傳奇小說에는 작자의 의식적인 창작태도가 엿보인다.⁴³⁾ 이러한 傳奇小說의 개념과 특징을 胡雲翼은 “唐代 사람들이 지은 소설은 거의 다 애달프고 눈물겨운 염정이나 또는 감작 놀라고 탄복할 仙俠의 이야기들을 그린 것으로 온통 새롭고 기이한 것을 취재했으며 치량하고 애처로운 인정, 의리를 다룬 것”⁴⁴⁾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면 「金現感虎」와 「虎語」를 幻夢構造를 이루고 있는 唐의 傳奇小說인 沈既濟의 「枕中記」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枕中記」는 「현실—꿈—현실」의 간단한 환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呂翁이 邯鄲으로 가는 도중에 邸舍에서 만난 少年 盧生에 삶의 無適함을 한탄하자 呂翁이 그를 부귀와 공명으로 가득찬 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꿈의 내용에는 崔氏女를 아내로 맞아 장가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고관대작을 두루 지내지만 결국은 나이 많아 병들자 부귀공명의 허망함을 깨닫고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마치 개인의 行狀과 같은 순차적 구성에 따른 서술적 나열을 보여주고 있다. 覺夢 후의 이야기도 자연히 부귀공명의 허망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枕中記」에서 꿈은 盧生으로 하여금 「夫寵辱之道，窮達之運，得喪之理，死生之情」 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枕中記」는 너무 敎示의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소설 구성에 있어 극적 긴박감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단지 盧生을 환몽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呂翁이 그에게 배개를 주었다든가, 몽롱한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 焚香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든가 하는 기교가 부분적으로 보일 뿐이다.

여기에 비해 「金現感虎」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죽음을 택한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미가 극적 구성 속에 용해되어 있다. 그리고 처녀의 죽음에 필연적 동기를 부여하고 계산된 목적으로서의 재생의 motif를 배제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숭고한 비장미와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이런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도 「金現感虎」는 唐 傳奇小說인 「枕中記」보다 우수한 작품임이 증명된다.

따라서, 「金現感虎」를 小說로 인정한다면, 「三國遺事」에 실려있는 小說의인 구조를

42) 黃湜江, 前揭書

43) 정해주, 韓·中傳奇小說과의 特徵比較(향란문학 10집,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1981), pp. 30~34.

44) 胡雲翼, 中國文學史(번역판) p. 27.

지닌 많은 작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說話로 인식되어 온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에 있어서는 6,7세기에 唐 傳奇가 대량으로 창작되어 8,9세기에는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우리의 경우 羅末麗初엔 유학생들에 의해 당과의 문물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그 시대적 상황이 충분히 小說 양산의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小說史를 15세기로 끌어 내리는 것은 문화적 후퇴를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고려후기의 假傳을 우리 小說의 효시로 잡는 논자도 있다.⁴⁵⁾ 기실 「金現感虎」는 애정갈등의 양상 하나만으로도 고려후기에 창작된 假傳보다 구성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더구나 우리의 문화를 수입한 日本에서도 10세기에 落窪物語 같은 小說이 등장했는데, 당시에 日本文化에 영향을 끼친 우리가 日本보다도 훨씬 뒤에야 小說이 등장했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⁴⁶⁾ 물론 편협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오류는 배제되어야 한다.

羅末麗初에 창작되어 「三國遺事」에 수록된 「金現感虎」는 혼탁한 현실에 반발하여 자유연애 사상을 부르짖음으로 해서 후대 염정소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비극적 결말은 Happy ending 으로 끝나는 古小說의 공식을 처음부터 파괴했으며 극적인 애정갈등은 說話와의 차이를 규정하는 한 논거로서 작용하여 우리 小說史를 적어도 9~10세기로 올려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아 물론, 종래까지 說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金現感虎」를 小說로 인정함으로써 羅末麗初에서 武臣亂 사이, 곧, 中世初期에 小說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小說史를 9~10세기로 올려잡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은 「金現感虎」가 우리 小說史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이라 할 수 있다.

V. 結 論

이상 本稿에서 考究한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내용을 통해 異本의 개념을 글자나 내용에 다소 차이가 나는 작품은 물론, 주제가 변용된 작품까지도 포함하여 「虎願」은 물론 「虎語」도 「金現感虎」의 異本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문헌을 통해 「新羅殊異傳」의 편저자는 崔致遠으로, 「殊異傳」의 편저자는 朴仁亮으로 추정하고, 「三國遺事」의 「金現感虎」도 「新羅殊異傳」의 「虎願」을 一然이 어느 정

45) 蘇在英, 朝鮮朝漢文小說의 系譜研究(충전대논문 11집 1981), p. 78.

鄭鉉東, 古代小說論(螢雪出版社, 1966), p. 73

朴成義, 韓國古代小說史(日新社, 1958), p. 130.

文璇奎, 韓國漢文學史(二友出版社 1977), p. 149.

金鉉龍, 麴醇傳과 麴先生傳研究(국어국문학 65·66호, 1974), p. 157

金東旭, 國文學史(日新社, 1976), p. 149.

閔丙秀, 韓國小說發達史(上)(韓國文化史大系 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p. 993.

46) 金光淳, 前掲書.

도 作意를 가미하여 전제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虎語」는 「新羅殊異傳」의 「虎願」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제 변용시킨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세째, 「金現感虎」는 애정 갈등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것으로 기존 사회에 대한 반발을, 한 여인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녀의 죽음은 사랑하는 金現을 출세시키는 희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네째, 「虎語」는 「新羅殊異傳」의 「虎願」을 참고로 하여 대몽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욕을 씻기 위해 筆舌로나마 그 울분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이다.

다섯째, 「虎願」은 「大東嶺府群玉」의 사전적 성격으로 그 내용이 대폭 축약되어 극적 긴박감을 상실하고 있으나 그 짧은 문장을 통해 조선조 유교사회에서 남자에 의해 희생당한 여인들의 운명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金現感虎」를 唐 傳奇小說인 「枕中記」와 비교해 본 결과 「金現感虎」는 이들 작품보다 극적 구성, 애정 갈등, 창작 태도 등에서 뛰어난 작품임이 드러났고, 「虎語」는 「枕中記」보다는 우수하지만 그 의식적인 불교 전파의 목적 때문에 문학적 기법이 뒤떨어지는 작품임이 드러났다.

일곱째, 위의 결과를 古小說의 개념과 연관지워 볼 때 「金現感虎」는 우리의 小說史를 적어도 9~10세기로 끌어 올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虎語」는 小說과 說話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장르의 퇴보도 있을 수 있다는 문학사의 특수성을 방증하는 작품으로 그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參 考 文 獻

- 金光淳, “韓國古小說史序說”(어문논총 19호,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
 ———,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2).
 ———, 韓國擬人小說研究(새문사, 1987).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精研社, 1959).
 金東旭, “韓國文學과 書誌”,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 國文學史, (日新社, 1983).
 金榮晚, “金現感虎說話에 나타난 佛教思想考”, (국어국문학,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2).
 金勇範, “原典批評의 한국적 적용”, (한국문학연구방법론, 민족문화사, 1983).
 金俊榮, 鄉歌文學, (형설출판사, 1983).
 金治洙, “문학에 있어서의 구조주의”, (현대문학비평의 방법론, 서울대 출판부, 1983).
 金台俊,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朴晟義, 韓國古代小說史, (일산사, 1958).
 白鐵·李秉岐, 國文學全史, (신구문화사, 1975).
 邊太望, 韓國史通論, (삼영사, 1986).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1979).

- 李能而, 古小說研究, (선명문화사, 1973).
- 李東歐譯注, 三國遺事, (三中堂文庫 15, 16, 삼중당, 1985)
- 李丙壽, 古典의 散策,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李相寶譯, 破閑集・補閑集・櫟翁稗說, (대양서적, 1972).
- 李相日, “설화문학의 변신사상과 원초적 사유”, (李槍永教授回甲紀念論文集, 서울대 출판부, 1972)
- 李相澤, 韓國古典小說의 探究, (중앙출판사, 1981)
- 李曄淳, 比較文學, (문학과 지성사, 1985).
- 林榮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 (한국한문학 지 5 집, 1981)
- 張德順,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75)
- 鄭址求, 古代小說論, (청실출판사, 1985).
- 정해주, “韓・中傳奇小說과의 特徵 比較”, (형탄문학 10집, 성신여자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 고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기식산업사, 1977)
- 趙偶濟, 國文學史概說, (을유문화사, 1982).
- 池茂煥, “新羅殊異傳研究”, (어문학 제 7 집, 한국어문학회 1978).
- _____, “傳奇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 (어문학, 32집, 한국어문학회, 1975).
- _____, 新羅漢文學史, (신라가야문화연구 4 집, 영남대 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2).
- 車相轍, 中國文學史, (동국문화사, 1958).
- 車溶柱, “金現感虎說話研究”, (청주사대논문집 제 7 집, 1978).
- _____, 古小說論考, (계명대출판부, 1985).
- 許永美, “補閑集의 文學的 性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黃浪江, “韓國民族說話와 호랑이”(국어국문학 제55~57집, 국어국문학회, 1979).
- _____, 韓國古小說史序說,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3).
- 胡雲翼, 中國文學史(번역판)